

시 한 구절의 울림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이야기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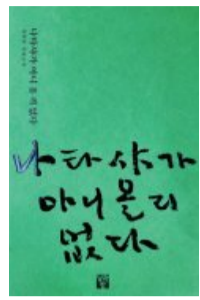
원명희 지음

시를 모티브로 한 소설은 시 구절이 지닌 강렬함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준다. 시에서 창작의 질료를 뽑아낸다는 일은 창작 그 이상의 감각과 감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비범한 재능이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실제 경험이나 상상력을 모티브로 소설을 창작한다. 소설은 장르적 특성상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허구나 온전한 상상력만으로는 직조할 수 없다. 반드시 그 '무언가'를 전제로 한다. 언급했듯이 이색적인 경험이나 찡찡한 체험, 기발한 상상력에서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재가 아닌 '시 한 줄'을 모티브로 장편 소설을 펴낸 이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원명희 소설가(74). 원 작가는 최근 두 번째 장편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낮과 밤)를 발간했다. 소설 제목은 백석 시인(1912~1996)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의 한 구절을 차용했다.

원 작가는 "이번 소설은 시인의 시에 혼을 뺏기고 절절



한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평생을 산 한 여인의 이야기"라며 "실제 우리와 함께 살았던 이 여인을 생각하며 감히 상상하고 그 뜻을 그리워했다"고 창작 배경을 밝힌다.

소설은 역사적 인물인 백석 시인과 그의 연인 자아의 이야기를 원텍스트로 다양한 사건과 상상이 씨줄, 날줄처럼 엮여 한 편의 다채로운 이야기로 수렴된다. 특히 백석의 시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서사가 진행돼 고아한 맛과 울림을 느낄 수 있다. 알려진 대로 백석은 젊은 시절 자아(김영환)라는 여인과 애뜻한 사랑을 나눴다. 20대 영어 교사 시절 요릿집에서 처음 만난 인연은 백석의 문학 인생에 큰 전환점을 준다.

소설은 자야로 치환되는 난영이라는 여성과 (백석)시인이 주인공이다. 집안이 가난했던 난영은 거문고와 가야금, 장을 배워 최고의 기생이 된다. 난영의 뛰어난 재능을 알아본 후원자가 유학을 권유하지만 불행하게도 독립자금 문제가 불거져 함흥 감옥소에 수감되고 만다. 난영은 그 후원을 속박자를 위해 함흥으로 떠나고 그곳에서 '일생의 단 하나의 정인' 시인을 만난다. 그러나 6·25라는 시대적 운명과 집안의 반대로 두 사람의 사랑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 결국 남과 북으로 갈려 생이별을 하게 되고 난영은 서울에서 요릿집을 운영해 큰 돈을 번다.

소설 중간 중간 작가의 상상력이 빛어낸 에피소드와 주변서사들이 흥미롭다. 상상이 쌓아올린 이야기는 오래 고민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난영이 요릿집에서 일하던 여자애가 낳은 아이 '위대한'을 지극정성으로 키워 미국

의 유명한 핵물리학자로 키운다는 내용, 돈에 눈이 먼 난영의 사촌이 그 핵물리학자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인다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이후 난영은 일본 교포와 연결돼 중국을 거쳐 북으로 가게 된다. 마침내 50년 만에 그토록 그리웠던 시인을 만나지만, 시인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다.

헤어지면서 시인은 꼬깃꼬깃 접힌 쪽지를 난영에게 건넨다. 거기에는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고 적혀 있다. 난영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뒤로 하고 이별을 고한다. 그녀의 마음 속에도 '시인이 어디에 있든 나한테 오지 않을 리 없다'는 문구가 화인처럼 박혀 있다.

국내로 돌아온 난영은 천 억대의 자산인 월성각을 스님에게 시주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한다. "재벌 예뻐 드릴 때 3번의 범종을 쳐 달라. 한 번은 시인을 위해, 또 한 번은 죽은 양아들 위대한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이 있는 기생들을 위해."

소설의 실제 인물 자아(김영환)는 지난 1999년 11월 14일 8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생전의 그는 "1000억 재산이 백석의 시 한 줄만 못하다"고 말했다 한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에 감동을 받아 섣뚱 대원각을 시주했다. 오늘의 길상사는 김영환의 그러한 고귀한 정신이 주춧돌이 돼 창건될 수 있었다.

원 작가는 "세월이 흘러 인생 뒤안길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한 '나' 자신을 발견한다. 부끄럽게도 작든 크든 '남' 하나 건지지 못한 거 같다"며 "그래서 시작한 것이 글쓰기였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침한 눈을 부비며 영혼에 군살이 배도록 쓰고 또 썼다"고 소회를 밝혔다.

〈낮과 밤·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백석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중에서)

가정 사정

조경란 지음

"이 소설을 쓰면서 나는 이야기가 서로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 주며 살아갈 위안을 준다는 걸 경험했다. 무척하고 쓸쓸한 밤에, 이 책을 읽는 분들께도 그 감정이 가닿을 수 있다면 좋겠다"

오래 읽는 '작가의 말'이 답답하면서도 잔잔한 위안으로 다가온다. "이야기가 서로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며"라는 말이 그렇다. 현대인들은 너무도 많은 말의 홍수, 이야기의 범람 속에서 살아간다. 그 가운데 위안을 줄 수 있는 이야기는 얼마나 될까.

조경란 작가가 6년 만에 소설집 '가정 사정'을 펴냈다. 연작소설 형태의 작품집은 가족 구성원들을 모티브로 전개된다. 지난 199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불란서 안경원'이 당선돼 소설 창작을 시작한 작가는 '나의 자웃빛 소파', '코끼리를 찾아서', '국자 이야기' 등의 소설집과 장편 '식빵 굽는 시간' 등을 발간했다.

이번 연작소설은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가족들 이야기가 중심 서사다. 저마다 직장생활 하느라 아니면 다른 일들로 분주한 가운데 해소되지 못한 상처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스토리는 오늘을 사는 많은 가족들의 이야기라 해도 무방하다.

표제작 '가정 사정'은 지난 2020년 김유정문학상 후보작으로, 아내와 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두 부녀가 맞는 새해 이야기다. 고층빌딩에서 떨어진 종이를 치우며 사는 아버지는 자신이 과연 좋은 남편이었고 아버지였는지 돌아본다. 언젠가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혼자 남겨지게 될 딸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배려하는 삶을 산다. 그러나 이들의 방식은 조금씩 어긋난다.

이밖에 책에는 '양파 던지기', '이만큼의 거리', '내부 수리중'의 소설이 수록돼 있다. 〈문학동네·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반대편으로 창문 열기

조선의 지음

신석정문학상, 송순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조선의 시인이 여섯 번째 시집 '반대편으로 창문 열기'를 발간했다.

작품집에는 생명과 삶, 사랑과 존재에 대한 성찰을 담은 50여 편의 시들이 수록돼 있다. 오래도록 사유를 하면서 순간순간 포착해낸 시상은 깊으면서도 담담하다. 결코 가볍지 않은 시어들은 읽고 난 후 아득한 뒷맛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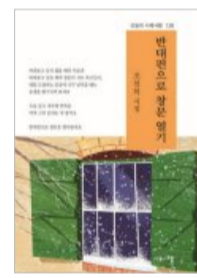
시인이 펴낸 이번 시집의 지향점은 다음의 '시인이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실패하면서도 몇 년을 전직하고 있는 모습은 다름 아닌 시인의 운명으로 수렴된다.

"창문에서 점점 멀어지는 내가 보이지 않는 허상을 붙잡는다. 정말 즐겁게 도망치고 싶다. 매일 같이 나는 실패하고 그렇게 또 몇 년을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 반대편 창문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나를 맞이하기 위해"

시집을 관통하는 주제와 정서는 '사랑'과 '생명'이다. 지극히 보편적인 주제이지만 그것을 누가 그려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기 마련인데 조 시인의 시작(詩作)은 그런 면에서 가치를 발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드름이 향한 곳은/ 처마 끝이거나 눈이 부신 밑바닥// 이렇다 할 용이도 없이 아래로 오르는 정점/ 설연에 닿지 못해 사라진 입김들이/ 난반사 되듯 구름의 역린에 달라붙는다"

위 시 '고드름의 뼈'는 고드름의 속성을 생명과 존재라는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본 작품이다. 시인인 박철영 문학평론가는 "'고드름'은 단순한 결빙 덩어리가 아닌 생명에 근원까지를 함의한 것으로 본 것이다. 물은 허공 아닌 땅 위에 존재하고 낮은 곳을 지향한다"고 평한다. 〈시와사람·1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로열 패밀리

정유경 지음

"치열한 권력 경쟁이 만들어 낸 유럽 명문가의 우아하고 내밀한 이야기."

가장 오랜기간 전세계에 영향력을 미친 대륙은 유럽일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일찍이 선진화를 이룬 유럽. 그렇다면 유럽을 지배해온 진짜 실체는 누구였을까? 유럽을 설계하고 이끌어온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로열 패밀리'는 오랫동안 유럽 왕실 속 여성들의 이야기를 글로 써온 정유경이 유럽의 로열 패밀리 중에서도 20세기 이후까지 명맥을 유지한 합스부르크, 부르봉, 로마노프, 호엔촐레른, 하노버, 비텔스바흐, 올덴부르크, 베틴까지 유서 깊은 여덟 가문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서술한다.

유럽의 가문은 대부분 작은 영지에서 시작해 세력을 확장했고,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 통혼, 근친결혼, 후계 상속 등 다양한 제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상속받은 영토를 둘러싼 형제간의 암투부터 각국의 명분을 건 전쟁까지 크고 작은 경쟁도 펼쳐졌으며, 왕위를 계승하거나 왕의 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움직임도 활발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발전해 지금의 유럽을 형성했다. 수많은 가문 중 이른바 '로열 패밀리'라 지칭할 수 있는 유럽의 명문가를 이해하면 유럽 역사의 핵심을 함께 이해할 수 있다.

가문의 선조부터 마지막 후손까지, 여덟 가문의 성장과 쇠락의 과정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한편, 통치를 이어받은 인물들의 계보를 따라가면서 역사의 뒤편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안내한다. 각 가문의 계보를 정리하면서 복잡하고 방대한 유럽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가계도와 약 100컷의 도판도 함께 수록됐다. 〈위즈덤하우스·2만2000원〉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